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독서문화와 독서교육



김 상 옥 춘천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childlit@empal.com

1.

독서, 곧 책 읽기가 의제가 되는 사회는 불행하다. 의제가 되어야 할 만큼 사회의 구성원들이 책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읽기가 의제가 되는 사회는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하다. 현재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며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2.

‘읽는다’는 행위를 단순히 문자해독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읽는 한 경로로 설정한다. ‘문자의 읽기/쓰기능력’을 지칭하는 literacy가 단순히 글씨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란 점에서, 문식성(文識性)이 아니라 문해력(文解力)이라고 옮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을, 나아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활동이며,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핵심적인 독서는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흩어진 정보와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걸려진 정보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 숙고해 나가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전자매체, 다 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서가 가장 중핵적인 활동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독서야말로 개별

적인 고립된 정보가 아닌,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사고를 이어나가고 확장해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독서교육이 독서의 본질과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무엇보다 인간의 총체적인 정신 활동으로 독서를 보지 않고 고립된 기능의 습득으로 독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미국의 경우 독서를 둘러싼 다양한 실험들이 국가적인 기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독서교육을 단순히 책을 읽게 만들자는 운동의 차원으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독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뜨거운 논쟁과 실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독서교육은 전적으로 시민단체나 교실에 선 교사의 몫으로 협소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나 노령화 사회 등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비중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화 생산과 수용의 능력과 연관된 채 독서교육이 국가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시사하는 점은 그 방법이 어떠하든, 적어도 단일한 독서교육의 방법이 독서활동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독서교육과 총체적이고 실천적인 독서교육이 서로 다른 입각점에 서서 서로를 비취보이며 논의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서교육은 전적으로 기능적 관점으로 뒤떨어져 있다. 학교교육은 독서 활동을 조각난 기능으로 분절시켜 가르치고 있으며, 독서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진흥방안 역시 독서를 통한 본원적인 내면적 성찰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 자체를 양적으로 수치화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곧 독서를 보는 경박한 관점들의 일방통행으로 우리 사회가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독서교육은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온당한 관점으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드는 시민사회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국가는 또 행정 기구는 독서환경의 변화에 역량 전체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스스로가 아주 제한된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성찰하고, 적어도 다른 관점들 역시 아주 그럴듯한 교육의 방법임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